

#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 1. 기본정보

|      |          |      |                          |
|------|----------|------|--------------------------|
| 파견국가 | 필리핀      | 파견도시 | 수빅                       |
| 파견대학 | 바탄반도주립대학 | 기간   | 2018.12.24. ~ 2019.1.17. |

##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파견대학     | 수빅에 위치한 Times-SLC. 수빅 자체가 작은 도시라서 하버포인트, sm물 위주로 돌아다녔다. 도시가 작아서 개인적으로 아쉬웠다.  |
| 수업       | 하루에 8시간 수업이라 점심시간에 낮잠은 필수였다. 1:1 수업이랑 그룹 수업이 있고 매시간 선생님들이 바뀌다 보니 생각만큼 피곤하지는 않았다. 영어로 대화해야 하니까 머리로 자꾸 문장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8시간씩 4주를 수업을 받으니 영어회화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수업만 힘들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학생 이야기 들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셔서 영어로 많이 말할 기회가 생긴다. 아침8시부터 오후5시까지 이어지는 수업이라 힘들다. |
| Activity | 주중 액티비티와 주말 액티비티로 구분된다. 목요일 오후에 학생들이 다 모여서 게임활동을 하는 액티비티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금요일은 'fun Friday'로, 예를 들면, 검은색 옷 입기 / 특이한 양말 신기 등이 있다. 주말 액티비티로는 요트 투어, 리조트 투어 등이 있다. 아쉬운 점은 계획표가 꽉 채워져 있어서 새로운 곳을 가보거나 새로운 걸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

## 3. 생활전반

| 구분 | 결과보고(서술형)   |
|----|---|
| 날씨 | 겨울에 가기에 딱 좋다. 한국의 가을 날씨였다. 가끔 더운 날도 있었지만 대체로 선선한 날씨였다. 반팔/반바지만 가지고 가서 후회했다. |
| 안전 | 안전하긴 한데 조금 무섭다.   |

|    |  |
|----|--|
| 숙소 | <p>학교기숙사( v )   홈스테이(   )   외부 숙소(   )   기타(   )</p> <p>바퀴벌레는 방에서 한 번 나오긴 했는데 가드 분이 잡아주셨다. 방 깨끗하게 치우고 벌레퇴치스프레이 마트에서 구입해서 자주 뿌리면 좋다.</p>  |
| 식사 | <p>학교식당( 0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0 )   기타(   )</p> <p>급식에 대해서 기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간도 잘 맞고 맛있다. 초반 급식은 정말 좋았는데 갈수록 재료가 반복되고 하다 보니 고등학교 급식 먹는 느낌도 든다. 저녁에는 주로 밖에 나가서 먹었다. 필리핀 음식이 전체적으로 조금 짜다.</p> |
| 교통 | <p>FB 또는 택시를 이용한다. 어학원이 산 속에 있어서 주변에 아무 것도 없다는 점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 항목              | 비용       |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
|-----------------|----------|----------------|
|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          | 출국 전 사전 납부     |
| 식비              | 300,000원 |                |
|                 |          |                |
| 합계              |          |                |

#### 5. 출국 전 준비사항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기약, 생리통 약, 물갈이 대비 약 등 비상약 꼭 챙길 것(어학원 내에도 비상약이 구비되어 있지만 혹시 모르니 본인이 평소에 먹던 약 챙기기)</li> <li>2. 100달러 단위로 환전하기</li> <li>3. 이티켓 준비하기</li> </ol> |
|---|

## 6. 본인 소감 및 평가

SLC는 필리핀 올랑가포 수빅에 위치하였으며, 도심으로부터 차로 20분 정도 떨어져있다. 산으로 둘러 싸여져 있기 때문에 벌레를 자주 보게 된다. 도마뱀이나 바퀴벌레, 날파리가 많으니 마트에서 벌레퇴치제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벌레퇴치제는 많이 사용하게 되니 작은 사이즈 말고 큰 사이즈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한다. 도심으로 나갈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택시 또는 FB이다. 택시비는 콜택시의 경우 250페소(2인기준)\*20=약 5천원이며, FB는 1인당 14-15페소\*20=약 300원이다. FB는 트럭을 개조한 형태이며 SLC로 오고 갈 때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된다. 사람이 많이 타면 굉장히 힘들다. 클락에 있는 쇼핑몰 투어를 갔을 때 약 2시간동안 FB를 타고 이동해 보았는데, 너무 불편했다. 환전은 하버포인트 2층 xchange 또는 sm슈퍼마켓 안쪽에서 할 수 있다. sm슈퍼마켓에서 한국 주민등록증을 냈는데 받아주셨다.

수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시간이다. 50분 수업, 10분 휴식이며 4개의 그룹 수업과 4개의 1:1 수업이 있다. 영어문장을 완전하게 말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룬 것 같다. 4주 동안 하루 8시간씩 영어를 공부하기 때문에 실력향상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에 자신감이 없어도 충분히 어학연수에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다.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문장 하나하나 학생을 배려하시는 게 느껴진다.

청소, 세탁 등을 해주셔서 딱히 신경 쓸 것도 없었다. 편하게 생활했다.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맛있었다. (하버포인트 내 팬케이크하우스, 피자볼란테 제외)

짐도 딱히 챙길 게 없고 적당히 마트에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다.

400달러를 환전해서 가져갔는데, 식비 외에는 돈을 안 써서 100달러나 남았다. 조금 아쉬운 점은 기념품을 너무 적게 사왔다. 다시 돌아가서 사오고 싶다.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시티투어 때 들린 수빅베이.



요트투어.



여기 진짜 맛있어요. 꼭 가세요!  
익스트림리 익스프레스



망이나살. 진짜 싸고 맛있음.



페퍼런치? 한국에 온 기분이었다.



코코라임. 파인애플밥 달달하고  
맛있어요.